

희망 날개소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풍경이야기

낡고 따뜻한
'추억'의 향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내가 직접 선곡해 모은 카세트테이프와 워크맨, 바나나우유,
과자종합선물세트, 곤로와 연탄. tvN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1980년대가 등장하면서 새록새록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골목을 뛰어다니며 함께 놀던 친구들과 이웃,
음식을 나눠 먹던 소소한 행복들. 이상하게도, 새록새록 빛바랜 기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추억'이 되어갑니다.
그것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추억이 된 그 시간에도
땀 흘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한 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Contents



스마트폰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만나세요.

2015 하반기 vol.16

발행인 관임근 이사장
발행일 2015년 12월 23일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6~18층
TEL. 02-3274-2027
Fax. 02-3274-2009
홈페이지 www.lofa.or.kr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LOFA 희망뉴스



16

LOFA 행복날개



22

LOFA 새소식



06 LOFA 인사이드

10 LOFA 포커스

14 LOFA 뉴스&이슈

18 상생(相生) LOFA

20 행복하게, 건강하게

24 LOFA 알리미

인사동정

30 도서발행



표지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은 자유로운 새처럼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합니다.
2015년 하반기, 열정과 희망이 담긴 소식들을 담았습니다. 소식지를 읽는 모든 분과
더 큰 희망의 날개를 펼치며 2016년을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LOFA

들으면 힘이 되는 말,

희망 뉴스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4





고객감동 실현, 역지사지易地思之 마인드가 핵심!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공기업의 믿음직한 재정 파트너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 회의 2015년 하반기도 어김없이 끄거웠다.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제도 등이 다양하게 추진돼온 까닭이다. 이와 더불어서 2015년 한해 누구보다 분주했을 '경남지부 강신길 사무국장'과 '전북지부 김인덕 사무국장'을 만나 지난날을 반추하고 새해 각오를 들어봤다.

경남지부
강신길 사무국장
&
전북지부
김인덕 사무국장

2015년도 하반기도 실로 치열하게 달려왔다. 공유재산 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을 목적으로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지방재정공제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회원과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차원에서 10월 1~2일 이를 동안 〈공유재산관리 회원 연찬회〉도 개최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 회원 연찬회〉의 경우, 처음으로 17개 시·도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끈끈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실제 시·도 지부 역시 공유재산관리 전문성 제고 교육, 회원 담당자 공제업무 토론회, 위험관리 컨설팅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방문 등등 다채로운 사업 아래 소리 없이 땀을 흘려왔는데…….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항상 하는 일인데요, 뭐…….” 한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자, 강신길 국장이 손사래 치면서 멋쩍게 웃는다. 공제업무경력 17년 차 베테랑. 그렇지만 일선에서 회원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것이 어디 그리 녹록기만 하겠는가.

“신규 공제사업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언제나 숙제죠.” 강신길 국장은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된, 행정종합 배상공제사업을 일례로 들면서 회상에 잠긴다. 그도 그럴 것이 비싼 공제회비 탓에 가입하는 시·군이 적었다고.

그러자 김인덕 국장은 “그런데도 실적 1등이시다!”면서 장난 섞인 부러움을 드러낸다. 이쯤 되니 노하우가 궁금하다. “사실 보장 내역만을 갖고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만한 것이 없죠. 문젠 너무 고가이다 보니, 아예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는 분이 많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로 뛰어다닙니다. 무엇이든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설득력이 높아지는 법이니까.”

진심으로 다가가면 열지 못할 문도 없다

강신길 국장의 설명에 김인덕 국장도 공감을 표한다. 이와 함께 인내심과 긍정성도 필수 덕목이라는데. “간혹 찾아뵈면 잡상인과 같이 취급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면 회의감이 밀려오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힘든 만큼 성취감이 크단 것입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하하하.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직업적 자긍심 덕이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일원으로 동고동락해온 지도 어언 9년째. 하지만 김인덕 국장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겸손한 미소를 짓는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일이 사람 상대하는 대면 업무더라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강 국장님은, 제가 가장 의지하는 분입니다. 업무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전화해서 투정이나 푸념 같은 것도 서슴없이 늘어놓곤 하죠. 근데 그때마다 국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도 결국 사람 사는 얘기’라고.”

사업에 치중한 접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 항상 회원 입장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강조하는 강신길 국장의 당부를 이제야 이해할 만하다. 퇴직까지 향후 3년. 앞으로 강신길 국장의 소망은 하나다. 후배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다지는 것. 선배의 고마운 각오에 김인덕 국장도 의기를 다진다. ●



2015 공유재산관리 유공자 포상 시상식

공유재산관리 사업의 가치를 다시금 아로새기다

지난 2015년 12월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층 회의실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에 헌신적인 이바지를 하였거나 공을 세운 회원 중에 우수유공자를 선발하고 포상하는 시상식이 마련됐기 때문. 이로 인해 공제가입 중요성도 새삼 재조명되었다.

2015년을 보름 남긴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의실로 생기로운 발걸음이 하나둘씩 이어졌다. '공유재산관리 유공자 포상 시상식'이 마련되어 있는 까닭. '지방재정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미션 아래 올해 처음 시행된 해당 시상식은 '공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에 대한 의식 제고' 면에 있어 더욱 뜻이 깊다. 금년도 선정된 포상적격자는 최우수상 1명(부상 150만 원), 우수상 1명(부상 100만 원), 장려상 3명(부상 80만 원)으로 총 5명이다.

그중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전광역시 박영수 재산운용계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은닉재산 31억 원에 따른 세입의 효과를 거둬들였으며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추진을 성사시킨 점이 높이 인정됐다.

Q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다?

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만큼 기억에 남는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1959년대 준공되어 노후한 주거공간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라 불편함은 물론이고 붕괴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빠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올 겨울 날이 추울 때마다 지은 지 60여 년이 된 건물에 불편하게 거주하시던 분들을 위해 시 소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듭니다. 또한 약 28억 원의 세입 증대를 이룬 것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해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공용 행정재산 중 공공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을 찾아,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해 얻은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세수 확보에 기여하였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Q 이전에는 119명에 그쳤던 배상공제 가입률을 대전광역시 본청 공무원 전체 3,328명으로 확대하셨는데,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권발급 담당 직원만 배상공제에 가입했는데, 각종 공사 및 업무처리 과실로 인하여 시민이나 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배상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등 2중 고통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 행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 직원에게 가입을 독려하게 됐습니다.

Q 전국 최초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국가는 개별법령에 의거 지자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는 국가 사용 토지에 대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재산과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전국 최초로 교환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 소유재산 3필지 172억 원과 국가소유재산 245필지 172억 원을 교환 완료해 재산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일치시켰습니다. 특히 교환 이후

우리시는 119안전센터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약 35억 원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Q 2016년 새해 계획은 무엇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정확한 통계라 생각합니다. 재산대장과 등기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과 소유권 변동 상황을 대조하여 오류사항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며, 또한 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 부지 내의 국유지를 시 소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 소유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매수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던 것을 시에서 원-스톱으로 대행 처리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해 시 세입 증대는 물론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신](#)
[점과 더불어 2015년](#)
[공유재산 유공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부터는 포상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
[대전광역시 박영수 재산운용계장](#)



도시를 걷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들이 그것이다. 자신들의 상호가 잘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는 하지만 크고 화려한 간판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아름다운 간판을 통해 우리의 거리 또한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디자인 경유제’라는 컨설팅을 통해 거리를 쾌적하게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에도 컨설팅이 필요하다

컨설팅.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대상으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재무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경영 컨설팅, 취업 컨설팅 등 많은 컨설팅 사업들이 있지만, 옥외광고물의 컨설팅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디자인 경유제는 바로 옥외광고물 컨설팅이다. 옥외광고 사업자 또는 점포주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전에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상담하기’를 거쳐, 당해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디자인 시안을 사전에 검토받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받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게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가(자문 위원)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디자인 컨설팅, 장점과 대상은?

‘디자인 경유제’는 주로 신도시, 혁신도시 등에 입주하는 대단위 상가와 주거지역 및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옥외광고사업자와 점포주가 지자체에 간판의 허가와 신고를 하기 전에 센터와 전문가를 통해 간판 시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시스템이다. 인허가 및 설치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와 센터의 협조 하에 간판의 디자인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장점은 다양하다. 우선은 비용과 시간이다. 디자인 경유제는 기설치 광고물을 지자체가 다시 정비할 때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애초에 지역별 규격에 맞는 간판을 만들어 설치하면 이후의 관리도 쉽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차후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인한 비용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센터 내의 축적된 자료와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폭주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업무를 분담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장점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획일적인 간판 디자인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간판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실무자들의 업무가 수월해진다는 점이다.

다양한 장점이 있는 ‘디자인 경유제’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해답이다. ●

INFORMATION

디자인 경유제 업무 프로세스

-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www.ooh.or.kr) 『간판개선사업컨설팅』 상담코너 이용(간판개선사업컨설팅 □ 상담하기 □ I-Pin 실명인증)를 통해 신청
- 디자인 시안 검토 답변
-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 또는 허가신청서 접수(광고사업자/점포주)
-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 또는 허가처리(지자체 담당공무원)
- 컨설팅 내용 준수, 옥외 광고물 제작·설치(광고사업자)



옥외광고도 예술이다!

‘제6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공모전’ 수상작 선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문화일보가 협찬하는 ‘제6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공모전’이 성황리에 끝났다.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UCC, 공익광고, 사진 등으로 세분되어 진행됐으며 UCC 부문 대상 “나를 밝히는 간판(정문경)”, 공익광고 부문 최우수상 “어울림이 맛이다, 어울림이 멋이다(강유겸), 사진 부문 대상 “비 내리는 날 카페(윤성민)” 등 총 54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희망날개 이번 호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따듯한 감성으로 무장한 사진 부문 작품들을 소개하겠다. 자세한 수상내용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에서 볼 수 있다.





공공개혁 선도를 위한 혁신방안 토론회 열려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 우리가 앞서 시작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4일 행정자치부의 인사·조직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으로 확산하고 범 행자부 혁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공개혁 선도를 위한 혁신방안 토론회'에는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전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와 조직,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방안 공유를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을 펼쳤다.

특성에 맞고 효율을 높이는 '혁신' 도입하라

한자리에 모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비롯한 행자부 소속 산하 기관은 토론회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인사·조직·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서로 벤치마킹하여 범 행자부 차원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입각한 역량중심 채용 기반 구축 및 투트랙 인사관리의 적극

반영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임금피크제 직원을 별도정원으로 구분(기존에는 정원에 포함),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적합한 직무부여를 통해 퇴직 후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부각해 앞으로 도입해야 할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공제회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지방회계재정제도의 체계적 연구와 신뢰도 높은 지방재정 통계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신설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정책의 수립, 민원·분쟁 등의 해결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행정부담 완화 및 신속한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방회계통계센터장(특1급)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했다는 점이 벤치마킹 사례로 꼽혔다.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 만들자

'일하는 방식' 분야에 있어서 공제회는 가장 먼저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회원들이 직접 가입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 모바일 등 현장과의 접점을 높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더불어 간판 개선 컨설팅과 지방재정 세미나를 통해 혁신과 공유의 장을 만들어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공제회의 위상을 강조했다.

또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 위험관리 중심으로의 사업방식 전환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자기계발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 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더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Google CCO(Chef Culture Officer)를 벤치마킹한 조직문화정책관 제도를 운영하여 정책관의 주도로 다양한 학습동아리 운영과 다각적 봉사 활동 추진, 연극과 영화 관람 등을 실시하는 문화의 날 지정, 부서별 Brown Bag 미팅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제회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혁신 노력을 서로 벤치마킹하여 더 많이 공유·확산 할 수 있는 계기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이러한 서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장기적으로 이를 안정화해 나가야만 '국가혁신부'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도적인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한 일자리 공유, 위험관리 컨설팅 사업추진 및 디자인 경유제를 시행해 이러한 '혁신'을 선도해 온 공제회는 '2015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사 및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LOFA

몸에는 새로운 활력을

행복 날개

마음엔 깊은 울림을,

매일의 삶에 행복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16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한 해를 보내다

나누는 기쁨, 쌓이는 행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속적인 1사1촌 활동을 비롯한 농촌 연계 봉사활동으로 농촌 활력에 기여해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갈 예정이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공제회는 지난 9월 22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서울 마포구 서강로 68)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식당, 건강관리실, 동아리마당, 웰빙건강센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괴임근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10명이 참여하여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배식 및 주방청소를 한 후

두유 2,000개를 기증했다. 또한, 겨울철을 대비해 소외된 어려운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전달했다. 강화군의 강화섬 쌀을 구매하여 마포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한 것. 이번 나눔 행사는 가뭄이 극심해 어려운 농촌과 사회 취약계층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를 위한 1석3조의 '행복', 1사1촌 활동

공제회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시 원평팜스테이마을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펼쳤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봉사활동이다. 감사, 공제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바쁜 일과를 잠시 멈추고 무, 배추 수확 및 고추밭 지지대 제거 작업을 중심으로 일손을 도왔다. 또 임직원들이 직접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하여 독거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렇듯 농촌의 일손을 도우며 함께 땀 흘리는 보람을 얻고, 농촌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의 발전을 도우며 어려운 이웃에게 정직하게 가꾼 우리농산물로 '건강'을 드리는 1석3조의 활동으로 공제회는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은 농촌마을과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로 3회째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산하기관 최초로 조직문화정책관(CCO, Chief Culture Officer)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강원도 춘천시 원평마을과의 자매결연 이후 농촌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일사일촌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마포구 내 노인복지관 배식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 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괴임근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반갑지 않은 겨울 불청객 감기와 독감

올 봄과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도 특정지역에서 강화된 독감의 일종이었다.

이렇듯 '감기보다 조금 심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되던 독감이, 조류독감과 신종플루, 메르스로 이어지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인간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으로 무섭게 진화하는 '독감 바이러스'와의 사투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에 그 무엇보다 바로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듯 다른 감기와 독감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가 900만 명인데 1차 대전 말부터 종결 후까지 무려 그 세 배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다. 당시 새로운 흑사병 취급을 받았던 이 병의 정체가 최근 조류독감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신종플루도 독감의 일종이었다.

매년 찾아오는 게 감기려니 하고 불편한 몸으로 며칠을 버티기엔 날이 갈수록 무섭게 진화하는 것이 감기바이러스다.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서, 감기가 조금 독해진 게 독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둘의 증상은 좀 다르다.

우선 감기는 기도 쪽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뒤 1~3일의 잠복기를 지나 콧물과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후 목의 통증을 거쳐 기침으로 진행돼 밤을 괴롭지 새우며 고통받기도 한다. 특히 어린 환자는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봐야 한다.

독감은 걸리는 순간 갑작스러운 고열이 찾아온다. 주로 목부터 아픈 감기와는 달리, 두통과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을 동반한다. 특히 39°C 이상의 고열이 3~5일 정도 지속되며, 회복된 뒤에도 몸에 기운이 없고 계속 피곤한 것은 물론 기침이 3주 정도 지속될 수 있다. 독감이 아이나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것은, 설사·복통을 동반해 설사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및 만성간질환 환자가 독감에 걸리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독감예방주사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비타민C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받은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콧물이 흐르면서 감기나 독감증상이 있으면 즉시 비타민 C를 수천 mg씩 복용하라"고 말했다.

그만큼 비타민C는 크게 도움이 된다. 또 무조건 잘 쉬고 안정하는 게 중요하다. 열이 오르고 목이 아프면 입맛이 뚝 떨어지고, 물을 먹을 때 고통이 심해져, 수분이 부족하기가 쉽다. 물과 따뜻한 차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독감과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므로, 주로 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는데, 이는 발열 48시간 이내 투여 시에 가장 효과가 좋으므로 만약 독감에 걸렸을 것 같다면 병원에 즉시 가서 처방받도록 하자. 보통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증후군의 위험성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독감은 예방이 먼저라 가까운 의원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평소에 무리하지 않으며,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독감 예방

- 비누와 물로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의치 않으면 소독겔을 이용한다.
- 독감은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기침할 때는 꼭 티슈를 이용한다.
-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픈데 무리하는 것은 금물, 과로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쉰다.



LOFA

변함없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새 소식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소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선정

6년간의 '농촌사회공헌' 노력 인정받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농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관'에 선정되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도'는 농촌 마을과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올해로 3회째 추진되고 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선정은 공제회의 지속적인 농촌 사회공헌활동의 결과물이었다. 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회원 지원이 기관의 설립 목적인 만큼, 도농 상생발전이 우리 회의 의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세부적인 목표와 방향으로는 농번기 일손돕기, 농잔마을 특산품 구매,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재능기부 차원의 홍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런 추진 과정에서 2010년 7월 강원도 원평리 팜스테이마을과 자

매결연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약 6년간 농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특히,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20여 명 이상의 인원이 봉사활동에 나서, 특산품 구입 후 사회복지시설 기부,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 공제회의 특성을 살린 안심 LED 간판 제작 및 설치, 직원 워크샵 장소로 자매결연 마을 선정 등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해왔다. 이런 노력은 언론을 통해서도 조명받았다. 문화일보의 봉사활동 동행취재 '1사1촌이 행복시대 이끈다', KTV 국민방송 '행복한 오후' 등의 동행취재 등이 이어지며 공제회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꾸준한 농촌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농 상생의 길을 열고 대외적인 인정을 받으며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공제회의 광임근 이사장은 "이번 농촌사회공헌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농촌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더욱 농촌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

2015년 경영합리화 워크숍 개최

경영실적평가 4년 연속 1위 자축과 향후계획 설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경영합리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제회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하게 된 것을 자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날인 13일에는 광임근 이사장의 경영철학과 비전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 성과분석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베스트 공제인 시상,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과 지방재정공제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 14일에는 공제회 임직원들을 위한 청렴 윤리강연이 있었으며 이후 조직인력 연구용역 착수보고 등 현안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이후에는 서산시 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보며 감태 등 지역특산품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03

상반기 옥외광고 우수디자인 시상

도시경관과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갖춘 디자인 선정



도안 총 300여 개 중 2014년 12월부터 6개월간 심의를 거쳐 선정된 총 73건의 디자인에 대해 1, 2차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조형성 등 4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2차 심사에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3개의 디자인을 2015년도 상반기 우수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옥외광고 우수 디자인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대자동차(주)의 투싼과 싼타페가 최우수디자인상에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애플코리아의 아이폰 6와 한화생명보험(주)의 한화생명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난 7월 23일 '2015년도 상반기 옥외광고 우수디자인 시상'을 개최했다.

센터는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150기 기금조성야립광고물 디자인

04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개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방안 논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자치부,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8월 27일부터 양일 간 경기도 이천시에서 ‘2015년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광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삼주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학회 및 연구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대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05

불법 현수막 근절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듭니다

바람직한 광고문화 캠페인 개최



불법 현수막 근절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 행정자치부 등 9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9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바람직한 광고문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불법광고물 민간자율정비단’ 발대식과 가두행진이 펼쳐졌으며, 거리전시와 현수막 체험거리가 조성되었다.

07

안전인증제도 위한 공동협력

한국옥외광고센터 - 한국TC협회 MOU 체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9월 16일 옥외광고물 표준화 및 안전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한국TC협회와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수명주기 동안 안전체계 확립 및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정착을 통한 생산 전 단계의 안전성 확보 등이다.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TC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옥외광고물 KS 제·개정의 용역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옥외광고 전문가와 함께 KS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08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나서다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옥외매체 MAP」으로 구축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유하는 업무협약(MOU)을 지난 11월 23일 체결했다. 「옥외매체 MAP」은 옥외광고 매체에 대한 정보를 광고주 및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 옥외광고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업 발전과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축하는 옥외광고 전문 웹 정보제공서비스이다. 재단은 옥외광고의 설치 위치, 운영 형태, 운영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센터가 수행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개발을 착수하여 2019년까지 다양한 옥외광고매체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06

유럽 보험시장 정보 및 전략 공유

유럽 자치단체 보험협회 초청 세미나 참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임근 이사장은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유럽 자치단체 보험협회(EMIG)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는 유럽의 보험(금융)시장 정보교환 및 위험보유 전략 공유를 위한 세미나로 유럽 각국 대표와 토론을 통해 확보된 공동의 이행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우위를 탐색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EMIG(European Municipal Insurance Group)의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이 참석하여 상호간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09

예비 ‘인재’들과 지방재정 발전 전략 나눈다

제1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개최



올해 처음 개최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이 많은 참여와 함께 성황리에 마감됐다.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논문’을 주제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권민영, 박용호, 전지수 학생들의 ‘지방재정 자율성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개편된 지방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목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방태영(연세대학교), 방상원(송실대학교) 학생의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청사 신축 행정구조 연구’에서는 노후화되는 지방 청사들의 신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5일에 개최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의 표창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2015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제2호) 발간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해외 옥외광고 종합자료집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 7개국(미국·호주·영국·프랑스·독일·중국·일본)의 통신원들이 해외 야립형 옥외광고 관리제도, 안전관리 및 점검사례,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발굴한 자료를 엮은 것이다. 이밖에도 독일·일본의 옥외광고 시장 현황, 파리 해외통신원의 2015비스콤 옥외광고 전시회 방문기 등 세계의 다양한 옥외광고 현장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산업체와 학계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홈페이지 www.ooh.or.kr에서 e-Book 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



제6호 지방재정 발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전문교양지 『지방재정』 제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특집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착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보조금관리제도, 재정지출 관리, 자치단체 특별회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특별기획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전북 정읍시의 서남권 추모공원 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재정 실무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본 책자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학계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홈페이지 www.lofa.or.kr에서 e-Book 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



2015 옥외광고 FOCUS (하반기, 제8호) 발간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 제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옥외광고와 불법광고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옥외광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과 옥외광고 실무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본 책자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산업체와 학계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홈페이지 www.ooh.or.kr에서 e-Book 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2015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한 해 동안 끊임없는 혁신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06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공유하고, 회원(자치단체,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컨설팅 사업추진 및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디자인 경유제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